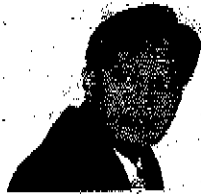


국민일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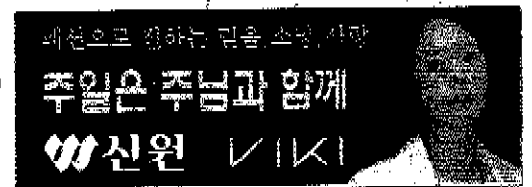
공기업 민영화 재벌잔치 우려

백용호 공정위원장 견제구에 재계 술렁



kukinews.com

2008년 5월 29일 목요일 (제5977호)



“태평양 전쟁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한국인 냐 기리고 싶어요”

日배우 구로다씨 기념비 추진

“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당한 한국인들의 냐
를 기리고 싶습니다. 한국인 여러분, 모두 도
와주세요.”

일본의 유명 배우이자 대표적 친한파로 알
려진 구로다 후쿠미(52·사진)씨는 26일 서울
서초동 한 식당에서 기자와 만나 ‘(한국인)
귀향기념비 건립위원회’ 사업이 난관을 겪고
있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. 구로다씨는

1978년 데뷔해
탤런트, 영화배
우, 리포터 등
으로 활약해왔
으며 2002년 한
·일 월드컵 일
본조직위원회 의사를 지내기도 했다.

17년전 꿈에 접은 조선인 희생자 나타나

일부 단체 사업 반대로 난관- 도움 호소

한국어에 능숙한 구로다씨는 “17년 전 어
느날 꿈에 한 젊은이가 나타나 ‘나는 조선인
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이름을 달고 죽었
다’며 위호를 풀어 달라고 하더라’면서 “꿈이
너무 생생해 조사를 시작하다가 기념비 건립
을 마음먹게 됐다”고 기념비 건립 사업을 시
작한 계기를 설명했다. 구로다씨는 가미카제
관련 자료를 모두 뒤진 끝에 그 젊은이가 경
남 사천사에서 태어나 25세의 나이로 일본 자
살특공대에 투입돼 오키나와 앞바다에서 사
망한 탁경원씨라고 확신했다.

이후 한국인 희생자의 신원을 찾는 작업을
해온 홍종필(72) 전 명지대 교수의 도움을 받



아 지난해 사천
시측에 위령비
를 세우고 싶다
는 뜻을 전했다.
사천시도 건립
부지를 내주는
등 흔쾌히 협조
해 이달 초 기념
비가 건립됐고
지난 10월에는
제막식이 열릴
예정이었다. 그
러나 광복회와
사천진보연합
등 일부 시민·
사회 단체 회원
들이 “타씨는

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린, 반민족 행위를 한
사람’이라며 농성을 벌여 결국 행사는 무산되
고 말았다.

구로다씨는 “위령비를 먼 받치에서 바라보
고 묵념만 드린 채 일본으로 돌아왔다”며 “사
흘 뒤 기념비까지 절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
말 많이 속상했다”고 토로했다. 그는 “기념비
는 타씨 한 사람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 희
생된 모든 한국인들을 위한 것’이라며 “일본
에서는 이 기념비가 한·일 양국의 미래를 변
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
큼 한국분들이 더 넓은 마음으로 희생자들의
영혼을 위로해 주었으면 한다”고 간절한 소망
을 전했다. 양지선 기자 dybsun@kmib.co.kr

서른한 살 싱글의 일상적 삶

최강희 SBS 새 드라마 세태풍자

2008년 5월 29일 목요일 (음력 4월 25일)

사람들

국민일보 21